



멕시코에서 보내는 선교편지

2025년 10월 이병호/최형진 선교사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이 두려운 말씀이 기억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길목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난 일 년간 무엇을 심었느냐?’ 이 물음 앞에 손톱 만큼이라도 당당하기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두려움으로, 설렘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만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함께 손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파시피코 교회 사역

가능하면 매달 선교 소식을 전하려고 했지만 지난 9월에는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소식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이곳 한인교회 목사님이 아는 교회에서 단기선교팀이 와서 파시피코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단기팀이 많은 준비를 해오셨고, 저희는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파시피코 교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와 정기적인 행사 덕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계속 진행중인 방과후 학교도 6명 정도의 어린이가 꾸준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기타교실을 하고 있는데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도 6~8명 정도 됩니다. 기타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에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5일에는 이곳 한인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들이 좋은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파시피코교회 호세 목사님의 사모님이 임신하여 내년 4월경 둘째 아이를 출산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잘 출산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 사모데이

“위로받는 위로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모데이가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현지 교회 사모님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며,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교회의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들이 다시금 사역 일선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총 24명의 사모님들이 오셨고, 이를 위해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30여명의 대원들이 오셔서 식사와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와 이곳에 있는 동료 GP선교사 부부와 함께 준비하였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한 목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좋은 기타를 중고로 구입하여 이번 행사에 찬양을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일에 잘 사용되었습니다. 이 행사 준비모임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매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모데이 뿐 아니라,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와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고 가르치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5년 10월호 ●

예수사랑 사람사랑 예수증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8)



◆ 현지 교회 설교

언어 훈련을 위해 현지교회 설교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현지교회 세곳에서 설교를 하였고, 이달에는 사모데이 준비 때문에 현지교회와 한인교회에서 각각 설교하였습니다.

현지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은 언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지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목회자들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도 한주만 빼고 모든 주일마다 현지교회에서 설교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현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 한글학교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한인교회에서 한글학교를 하고 있지만 곧 현지교회에서 하려고 현지교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현지교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회가 잘 선정 되면 좋겠습니다. †

◆ 마약 재활센터 사역

언젠가 마약 재활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재활센터에는 저희 동료 선교사가 한달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능하면 매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게 되면 최소 몇 개월간 머물러야 하는 재활센터에서 그 몇 개월간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부르심에 충성하도록.

※파시피코교회의 성장과 호세목사님에게 지혜 주소서.

※설교사역과 한글학교 사역에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마약재활센터 사역이 잘 준비되어 시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가도록.